

국감 브리핑 |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국회의원

간호관리료 신고의무화 대책 촉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공 간호사 확보에 달려



윤종필 국회의원이 국회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합서비스 병동이 타 병동에 비해 업무강도가 더 강한 만큼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필 의원은 "2015년 12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보인력 간의 업무가 정립되는 등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면서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하위법령에 규정해야 하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을 포함한 23개 법령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혼재돼 있다"며 "이러한 법체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개정된 의료법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종필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은 간호관리료 신고율이 100%이고, 종합병원의 신고율이 90% 수준인 데 비해 병원의 신고율은 32%에 불과하다"면서 "병원들이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7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간호인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정확한 간호인력을 파악하지 못하면 어떻게 간호인력수급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를 마친 윤종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간호수가 개편과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등급제 전면 개편 등의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상세히 지적했다"면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호사들에게 꼭 필요한 방향으로 문제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종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여성장군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장을 지냈으며, 대한간호협회 감사 및 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다.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혜진 기자 hjjo@koreanurse.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10월 12~31일 실시했다.

간호사 출신인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간호 및 보건복지 관련 현안에 대해 폭넓게 질의했다. 특히 숙련된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성공은 간호사 인력확보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윤종필 의원은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 "의료기관이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간호사 노동강도 완화 및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숙련된 간호사들이 오래 재직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없이 신규간호사 배출을 늘리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종필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공의 핵심은 간호사 인력 확보에 있다"면서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은 2만4051개로 목표치 대비 86%를 달성했으나, 실제 병원의 85%가 간호사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타 병동에 비해 업무강도가 더 강한 만큼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인의 날 대통령 표창

김형숙 서울 동작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진남 대구서부노인전문병원 간호팀장



김형숙 서울 동작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이 제21회 노인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치매예방 관리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06년 서울시에서 근무하면서 국내 최초로 '광역단위(서울시) 치매예방관리 보건모범'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기여했다. 2015년 전국광역치매센터 평가에서 서울시가 1위로 수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2016년부터 동작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만75세 전수 치매검진사업을 추진하는 데 공헌했다. 올해는 만75세 전수 치매검진사업을 통한 예방관리 방안을 수립해 방문간호사와 치매지원센터가 협력해 추진하도록 했다.



강진남 대구서부노인전문병원 간호팀장이 제21회 노인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치매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노인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 노인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역사회와 소외된 경증치매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치매환자를 위한 맞춤형 건강교육에 힘써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자문조사위원으로 위촉받아 1주기 요양병원 인증조사에 참여한 바 있다. 현재 노인간호사회 대구·경북지회장을 맡고 있으며, 노인간호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재외한인간호사회 총회 및 학술대회 열려

조명숙 새 회장 선출 ... 사업계획 심의

재외한인간호사회(OKNA)는 제4회 총회 및 학술대회를 '화합과 번영의 새로운 도약' 주제로 10월 6~7일 하와이 사미나데에서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조명숙 수석부회장(전 뉴욕한인간호협회회장)이 선출됐다. 새 이사진은 모니카 권 회장이 맡았으며, 차기 회장으로 강선화 전 에리조나한인간호협회장이 선출됐다.

조명숙 신임 회장은 "재외한인간호사회를 구성점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인간호사들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면서 "한인 1.5세와 2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외한인간호사회를 이끌어 온 유분자 이사장은 "이사장직의 무거운 소임을 내려놓으면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총회에서는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했다. 2018년 6월 뉴욕에서 열린 세계 한인간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학술대회는 '보건의료의 변화: 간호실무와 리더십의 통합' 주제로 열렸다. 기조강연, 학술강연, 패널토의, 그룹 워크숍 등이 진행됐다. 이어 하와이 문화체험을 통해 화합하고 협력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규숙 기자 kschung@

병원간호사회 간호윤리 상황극 콘테스트

병원간호사회(회장 박영우)가 '간호윤리 상황극 콘테스트'를 10월 30일 개최했다.

임상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간호윤리 상황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를 통해 전국 14개 병원에서 총 35편의 시나리오가 접수됐다. 이 중 8편이 선정됐으며, 콘테스트에서 간호사들이 직접 상황극 연기를 선보였다.

최우수상은 '진실을 담은 간호, 진심을 다한 간호'(이경순 외·고대안암병원)가 차지했으며, 상금 150만원이 수여됐다.

이외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우수상(상금 100만원)='진짜 간호사'(이연진 외·건국대병원) '나를 아시나요?(김미영 외·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장려



상(상금 70만원)='보이지 않는 진실'(이형복 외·서울대병원) '갑 잘하는 의사,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간호사'(이아람 외·한도병원) '환자의 안전을 부탁해'(정순덕 외·세브란스병원) '불편한 우선순위'(최성희 외·이주대병원) '신규간호사 박봉이, 병원에서 살아남기'(곽수미 외·지샘병원) 심사위원장을 맡은 임영란 순천향대 간호학과 명예교수가 '갑'과 '을', 그리고 간호사' 주제 특강을 했다.

오세정 기자 sjph@

한국간호윤리학회 창립

초대회장 안성희 교수 ... 간호윤리 교육 주력키로

한국간호윤리학회 창립 총회를 11월 4일 갖고 출범했다.

초대회장으로 안성희 가톨릭대 간호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제1부회장이 김신미 창원대 간호학과 교수, 제2부회장이 이순행 서울아산병원 PI팀장이 임명됐다.

간호윤리학회는 한국 간호윤리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간호윤리 풍토를 조성하고자 창립됐다.

학회는 간호윤리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간호윤리교실 등을 운영하고, 간호윤리 교육과정 표준화에 힘쓰는 계획이다. 간호사를 위한 윤리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정책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우선 연구주제 개발을 위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연 2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회지 발간을 준비할 예정이다. 회원 확보를 위한 홍보에 힘쓰기로 했다.

이번 총회와 함께 '한국 간호윤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주혜진 기자 hjjo@

정의롭고 차별 없는 사회, 여성이 주도한다

제52회 전국여성대회가 '정의롭고 차별 없는 사회, 여성이 주도한다!' 주제로 11월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을 비롯한 62개 회원단체 대표 및 여성지도자 2000여명이 참석했다.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대회사에서 "진정한 성평등 사회는 여성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없고 남녀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 때 실현될 수 있다"면서 "그동안 선배 여성지도자들이 여성의 지위와 인권 향상을 위해 힘써온 것처럼 우리 여성들이 힘을 모아 진정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여성의 자아실현과 행복뿐만 아니라 국가의 도약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면서 "취업·임금·승진에서의 성차별을 없애고, 보육에 대한 남성의 분담과 국가의 책임을 대폭 늘리고, 공공부문부터 유리전장을 없애는 등 성평등 정책을 힘차게 펼쳐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여성지도자들은 결



의문을 통해 여성이 사회에서 겪는 모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결의문은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과 이현선 전남여성단체협의회장이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여성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모든 폭력 근절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겪는 차별 해소 △일·생활 균형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 마련 △공공부문 및 민간 부문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동등한 남녀참여 △여성의 안보의식 및 평화통일에 대한 의식 제고 △부정, 부패, 부조리를 적절히 청렴한 사회 실현 △정규교육과정에서의 성평등교육 의무화와 사회 전 분야 성평등교육 활성화 등이 담겼다.

이어 '정의로운 사회, 여성참여 50%' 문구가 적힌 스카프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최수정 기자 sjchoi@

보수교육 프로그램 정보안내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 edu.kna.or.kr
연간 발행계획에 따라 11월 16일자 신문 휴간합니다.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김옥수 인쇄인 김갑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0406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호사신문 (02)2260-2571 FAX (02)2260-2579 특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news.co.kr

29년 전통 대방열림고시학원

기술직 공무원 (간호직) (보건직) (보건진료직) (의료기술직) 국가면허시험 (간호사국가고사) (위생사) 연세대 RN-BSN

최다합격자 + 입소문, 합격생이 적극 추천하는 기술직 명문 학원



상담문의 02-823-4700 서울 지하철 1호선 대방역3번출구
빕스 우측건물(1층 피자헛, 2·4층학원)

- ★ 대방열림고시학원의 강점 ★
- 과목별 수험생 선호도 1위 교수진 구성
- 매년 기술직 공무원 최다합격자 배출
- 수강생이 가장 많고 입소문으로 유명한 학원
- 학원직강을 그대로 촬영한 최신 동영상 강의
- 최고의 시설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
- 최신 스마트폰 동영상 강좌 시스템
- 체계적인 시스템 및 학원직강 연중 무중단 진행

매일 초 개강 / 수시 등록 가능 / 학원강의 연중 순환식 진행
이론반 > 심화반 > 기출문제반 > 단원별·모의고사 문제풀이반

2018 연세대 RN-BSN 최신 동영상 강의 서비스 중 노성신 교수
오직 연세대학교 RN-BSN을 위한 특화된 강의로 직강 및 동영상 강의 진행

www.yulimgosi.com